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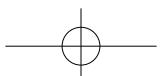
Chapter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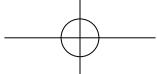
하브루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으로 짹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통해 서로가 학습력을 키워 가는 교육법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퍼센트, 아이비리그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핵심 비결이 되었다. 하브루타의 기본 철학과 실천할 때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하브루타의 기본 철학

- ◉ 말은 생각 없이 할 수 없다.
- ◉ 말이 생각을 부른다.
- ◉ 생각이 생각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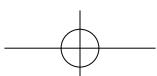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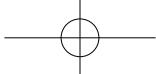
하브루타의 기본 원칙

-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 아이의 질문을 살려 대화를 나눈다.
- 아이들끼리 짹 토론, 모둠 토론을 하게 한다.
- 아이에게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 “네 생각은 어때?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묻는다.
- 아이의 답이 틀려도 다시 질문으로 답한다.
- 질문하기 전에 충분히 내용을 알게 한다.
- 아이의 말에 집중하고 어떤 말도 막지 않는다.
- 아이의 말에 구체적 근거를 들어 칭찬한다.
- 아이가 모르는 것은 스스로 찾아보게 한다.
- 한 가지 내용을 깊이 있게, 오래 다룬다.

■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고등 사고력 때문이다

우리는 강의를 들을 때 얼마든지 생각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다. 멍하게 먼 산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졸 수도 있다.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지금 학교 수업은 주로 교사가 강의와 설명을 하고 학생들은 듣거나 들으면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 그렇게 들은 지식들을 외워서 시험 보는 공부를 계속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것은 알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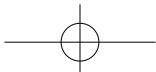
은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와 새로운 생각,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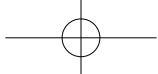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할 수 있는가? 말은 결코 생각 없이 할 수 없다. 아이들이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생각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동물과는 뇌가 다르고, 뇌가 다르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을 하는가? 언어를 가지고 생각한다. 언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언어가 아닌 생각은 본능이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하고 생각은 언어로 가능하다.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라면 인간이 동물과 가장 다른 점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언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능력이다. 생각하는 능력과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다. 아이들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쉽고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떠들지 말고 공부해.” 또는 “놀지 말고 공부해라.”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떠드는 것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공부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대인이 세계 0.2퍼센트의 인구를 가지고 백오십 배의 효율성인 노벨상 30%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대인이 미국 인구의 2퍼센트를 가지고 하버드나 예일 등 아이비리그를 30퍼센트나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금융이나 경제, 법률,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한 분야에서만 성공을 한다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이유를 연구하면 되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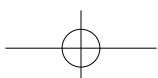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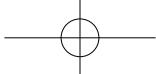
지만 유대인은 한 분야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는 이유를 연구하고 찾아야 한다.

유대인이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것은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인 생각하는 힘, 즉 사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고력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지 못하는 고등 사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 사고력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안목이나 통찰력, 창의성 같은 것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어떤 사물을 새롭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 어떤 대상이나 견해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일반적 사고력으로는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내는 능력이다. 유대인은 이러한 고등 사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벨상이나 각계각층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벼는 이유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서 투자하고 대응하기 때문이다.

■ 말은 생각을 부르고, 생각은 생각을 부른다

유대인의 고등 사고력은 어떻게 길러졌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공부 시간이 긴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고등 사고력이 길러졌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생각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이 생활화되어 있을까? 유대인은 하브루타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질문하므로 말이 일상화되어 있다. 또 책을 읽고 상대방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글을 쓰는 것 역시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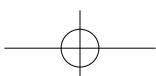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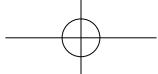
서든 일상화되어 있다. 그것은 말을 하다 보니 생각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등 사고력이 길러졌다는 뜻이다. 유대인들에게 고등 사고력이 길러진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은 생각을 부른다.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게 된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상대방의 새로운 질문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연결되는 것이다. 법정 논쟁을 떠올려 보자. 변호사와 검사가 판사나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치열하게 법정 논리 다툼을 벌인다.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즉각 상대방의 말과 논리와 증거에 대해 새로운 논리를 펴야 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야만 판사와 배심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할 여유가 없다. 바로바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유대인 중에 변호사가 많고 유대인 변호사들이 승리하는 비율이 높을까?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를 통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습관이 그 어떤 민족보다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논리를 듣자마자 바로 그에 대응하는 능력이 유대인들에게는 습관화되어 있다. 말이 계속해서 생각을 부르기 때문이다.

또 생각이 생각을 부른다. 유대인들에게 고등 사고력이 길러진 이유는 끊임없이 생각이 생각을 부르기 때문이다. 대화가 계속되고 토론과 논쟁으로 깊어지면 생각이 생각을 부르게 된다. 토라에 기록되어 있듯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토라에는 철은 철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딪쳐야 지혜가 예리해 진다고 되어 있다. 이는 철이 철과 서로 부딪치면서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유대인은 성경도 하브루타로 학습함으로써 지능이 발달되고 신의 성품이 얼굴에 나





타나 빛나게 된다는 뜻이다. 사람이 지혜로워지려면 친구와 부딪쳐야 한다는 말이다. 유대인들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친구들과 부딪치면서 서로를 날카롭게 한다. 여기서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필풀(Pilpul)’이다. 이것은 ‘날카로운 분석’을 의미하며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탈무드를 토론할 때 여러 단어의 개념적 차 이를 설명하고 갈등이나 모순 등을 찾아내기 위해 본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과 논쟁은 서로의 사고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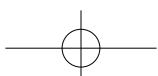
■ 하브루타는 질문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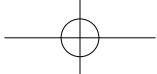
하브루타를 실천할 때의 기본 원칙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브루타의 기본 원칙은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하브루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 하브루타의 전제는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하브루타의 막강한 힘은 여기서 나온다. 아이들에게 하브루타를 적용할 때 어떻게든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국의 교사와 부모 대부분은 생각, 판단, 결정을 어른들이 대신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알려 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냥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잔소리를 듣는 거라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하브루타의 기본 원칙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어른이 하는 질문보다 아이의 질문이 중요하다. 하브루타의 기본은 아이의 질문을 살려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 교육에서는 질문 자체도 별로 없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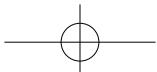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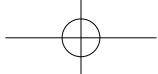
질문을 하더라도 주로 부모나 교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에서 질문은 교사의 발문을 주로 떠올린다. 하지만 교육은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고 아이가 스스로 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 어떻게든 아이가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 하브루타의 기본 원칙이다.

셋째, 아이들끼리 토론하고 논쟁하게 한다. 하브루타 하면 주로 부모와 아이가, 또는 교사와 아이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하브루타의 기본 원칙은 아이들끼리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다. 아이들끼리 두 명이 짹을 지어서 토론하면 짹 하브루타가 되고, 네 명 이상이 토론하면 모둠 하브루타가 된다. 아이들이 많아지면 토론의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둠은 네 명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떻게든 아이들끼리 하는 하브루타를 장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넷째, 아이들에게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깨우고, 다르게 생각하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일이다. 가르치고 설명하고 강의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질문을 해서 아이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브루타의 기본이다. 그래서 “네 생각은 어때?”와 “왜 그렇게 생각해?”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대인 부모나 교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마타호세프, 바로 “네 생각은 어때?”라는 말이다. 아이가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또 정답을 알려 주고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질문을 한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질문해 아이가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돋는 것이다.

다섯째, 아이가 틀린 대답을 해도 그것을 교정해 주고 옳은 정답을 알려 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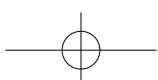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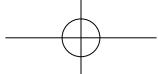
이 아니라 아이가 질문을 통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질문을 해도 좋다. 설명하거나 정답을 알려 주지 않고 질문으로 답한다.

여섯째, 하브루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이 공부하려는 내용이나 대화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하는 것이 좋다. 동화를 가지고 하브루타를 할 경우 동화의 내용을 모르고는 아이들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동화를 충분히 알게 한다. 우리는 이런 경우 주로 아이들에게 먼저 동화를 읽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동화를 들려주거나 아이들이 스스로 소리내서 읽게 한다. 아이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읽게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일곱째, 아이의 말에 집중하고 그 어떤 말도 막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말에 대해 격려하고 공감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먼저다. 아이의 말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하고 공감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말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이의 말에 대해 틀린 것을 지적하고 정답을 알려 주면 아이는 다시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틀린 것을 지적당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잘 알고 있는 것도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째, 아이들의 말문을 트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하든지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아이에게 착하구나, 잘했다, 열심히 했구나 하고 일반적인 칭찬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적인 칭찬은 아이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영혼 없는 칭찬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영혼 없는 말에 대해서는 그 진심을 금방 느끼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칭찬하는 것이 좋다.





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야 아이들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정립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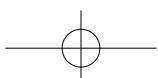
아홉째, 아이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부모나 교사가 알려 주고 설명해 주기보다 아이가 직접 찾아보도록 한다. 아이 스스로 책을 찾거나 검색을 해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자기 동기에 의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이다. 아이가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만이 아이 것이 된다. 아이가 직접 생각하고 결정해야만 실천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이가 직접 찾아보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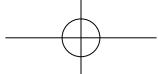
열째,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 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즉 양보다는 질이고 넓이보다는 깊이다. 책을 읽고 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깊이 읽지 않고 생각하면서 읽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는 쉬운 방법은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이다. 즉 질문을 던지고 책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내용보다 한 내용을 깊이 있게 토론하는 것이 하브루타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 하브루타는 사실, 상상, 실천, 종합의 네 단계 질문으로

하브루타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네 단계의 질문을 거친다. 사실, 상상, 실천, 종합이 그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사실 하브루타이다. 사실 하브루타는 내용 하브루타라고도 한다. 본문이나 내용에 대해서 사실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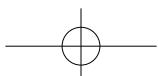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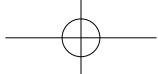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단계는 내용을 아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고는 대화와 토론이 길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상상 하브루타로 심화 하브루타라고도 한다. 이 단계는 다양한 해답을 찾아내는 시간이다.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하고 연상하는 사고의 시간이다. 어린이에게 이 단계가 아주 중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실천 하브루타 또는 적용 하브루타의 단계이다. 본문의 내용을 지금의 나의 일상생활과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하브루타이다. 우리 교육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토론해야만 내 것이 되고 실천으로 이어진다. 즉 이 시간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등을 토론하면서 같이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네 번째 단계는 종합 하브루타로 메타 하브루타라고도 한다. 앞에서 이루어진 세 단계를 뛰뚫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다. 내용 자체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황에 대해 배울 때 이황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배운다. 하지만 유대인은 그들에게 아주 유명한 랍비 힐렐 같은 학자에 대해 배울 때 힐렐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배우지만 그 사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종합 하브루타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내용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무엇인지, 그 생각을 넘어서는 다른 견해가 있는지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이 네 단계의 질문을 생각해 보자.

누가 공주와 결혼을?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주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찾아와 치료를 해 봤지만 효험이 없었어요. 다급해진 왕은 궁궐 앞에 포고문을 붙였어요.

“공주의 병을 고쳐 주는 사람은 누구든 공주와 결혼을 시킬 것이며, 왕위를 물려주겠다.”

신하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왕의 포고문을 읽으며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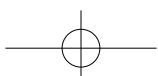
“공주님의 병을 고쳐 주면 사위로 삼겠다고? 게다가 왕위까지 물려준다고? 와, 정말 대단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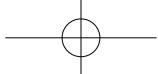
어느새 온 나라의 의원들이 물려와 공주를 살펴봤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공주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이지요. 왕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해져만 갔어요.

그런데 아주 먼 나라에 각기 보물을 가지고 있는 세 왕자가 있었어요. 첫째는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졌고, 둘째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양탄자를 가졌고, 막내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망원경으로 멀리까지 보고 있던 첫째가 무릎을 쳤어요. 궁궐 앞에 붙어 있는 포고문을 보았던 것이지요.

“공주님이 몹쓸 병에 걸렸군. 공주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공주님과 결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위도 물려받는다는군!”

세 왕자는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세 왕자는 둘째의 마법 양탄자에 올라타고 궁궐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궁궐 앞에 도착했어요. 서둘러 궁궐 안으로 들어간 후 막내 왕자는 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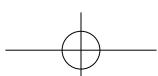
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였고, 그 사과를 먹은 공주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자리 를 털고 일어났어요. 왕은 몹시 기뻐했고, 궁궐은 잔치로 떠들썩했어요. 하지만 이젠 새로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신랑감을 결정할 때가 되었는데, 세 왕자는 서로 자신의 공이 더 크다고 주장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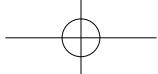
사실(내용) 하브루타 : 사실적인 내용 이해하기

- 아름다운 공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자 왕은 어떤 포고령을 내렸는가?
- 의원들은 왜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는가?
- 먼 나라의 왕자는 몇 명이었는가?
- 첫째 왕자가 가진 보물은 무엇이었는가?
- 둘째 왕자는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가?
- 셋째 왕자가 가진 보물은 무엇이었는가?
- 첫째 왕자는 자신이 가진 보물로 어떤 일을 했는가?
- 둘째 왕자는 자신의 보물로 무엇을 했는가?
- 셋째 왕자는 자신이 가진 보물로 어떤 일을 했는가?
- 공주는 무엇을 먹고 병이 깨끗하게 나았는가?
- 왕자들은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가?

상상(심화) 하브루타 : 마음껏 상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기

- 임금은 왜 공주를 살려 주는 사람에게 왕위까지 물려주겠다고 했는가?
- 세 왕자의 말을 듣고 있던 왕은 누구를 공주와 결혼시켰을까?
-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세 왕자의 보물은 현재 각각 어떻게 되었는가?
- 망원경과 양탄자 그리고 사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사과의 단점은 무엇인가?
- 만일 셋째가 사위가 되고 장차 왕위를 이어받았다면 셋째는 왕의 자격이 있는가?
- 그렇다면 사위가 왕 역할을 잘하도록 왕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 만약 공주가 셋째와 결혼하는 걸 싫어한다면 어떻게 될까?
- 공주에게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 셋째가 외동딸을 싫어하여 결혼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 셋째와 공주가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까?
-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임금이 공주와의 결혼까지 약속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을까?

실천(적용) 하브루타: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기

- 공주를 살려야 하는데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이 죽어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일 부모가 죽어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공주를 살려 주는 사람에게 왕위까지 물려주는 건 적절한 보상인가?
- 임금은 삼형제 중 한 사람을 사위로 삼아야 한다.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내가 왕자고 다음에 왕이 된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나는 어떤 것이든 아낌없이 준 적이 있는가? 주고 나서 어땠는가?
-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그 귀한 것을 어떨 때 사용할 것인가?
- 나의 희생이 꼭 필요한 때가 온다면 아낌없이 줄 것인가?

종합(메타) 하브루타: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다른 의견 제시하기

- 내가 왕이라면 누구를 공주와 결혼시키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세 왕자 중에 한 사람을 나로 해서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꾸며서 이야기해 보자.
-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자.
-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
-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크게 드는 의문은 무엇인가?

